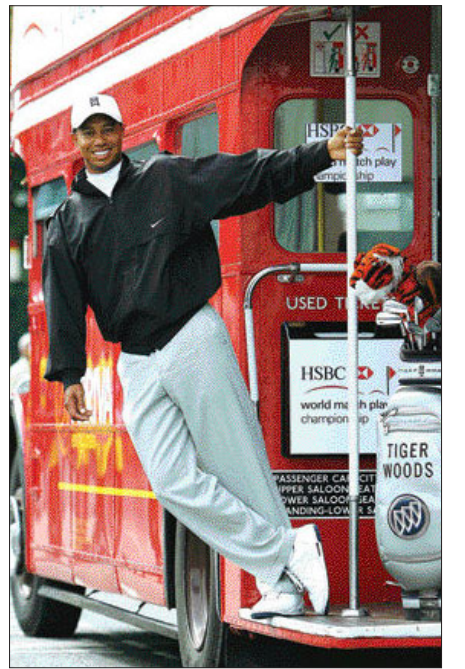




‘검은 독거미’의 시선 미국 여자 포켓볼을 휩쓴 ‘검은 독거미’ 자넷 리가 13일 오후 잠실 롯데월드 특설무대에서 열린 ‘트릭샷 매직 챌린지’에서 조준을 하고 있다.



“정상에 있을때 은퇴하고 싶다”

타이거 우즈 인터뷰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최근 전격 은퇴를 선언한 자동차 경주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처럼 자신도 정상에 있을 때 은퇴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우즈는 영국 런던의 웨스트우드골프장에서 14일부터 열리는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HSBC월드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출전에 앞서 가진 현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13일 AFP통신이 전했다. 슈마허가 존경하는 스포츠인이었다며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을 때 물러나는 것은 언제나 자신도 하고 싶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우즈는 “(원조 테니스 황제였던) 피트 샘프라스가 그랬고, 미국 프로풋볼(NFL)의 존 엘웨이드도 그랬다”면서 “현역 마지막으로, 그것도 메이저급 경기에서 우승하고 은퇴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면 계속할 이유가 없다”면서 “몸 상태를 언제까지 최상으로 유지할지 아무도 모른다. 운동선수는 의욕은 넘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날을 언제가는 맞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A 장성호 등 3명 AG 야구대표팀 합류

대표선수 선발에 혼선을 빚었던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야구국가대표팀의 최종 엔트리가 확정됐다. 김재박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감독은 불참을 선언한 김동주와 홍성흔(이상 두산), 구대성(한화)을 대체할 선수로 장성호(KIA)와 조인성, 우규민(이상 LG)을 지명해 13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통보했다. 김동주 대신 선발된 장성호는 국내 프로야구의 대표적인 교타자로 이날 현재 타율 0.300으로 타격랭킹 6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1루수인 장성호는 이대호(롯데)와 포지션이 겹쳐 둘 중 한 명을 지명 타자로 돌리는 등 기용방안에 애로가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마운드 환상의 콤비 탄생!!!

〈윤석민〉

〈한기주〉

“팀 4강행 우리가 이끈다”

‘중간’ 한기주-‘마무리’ 윤석민 ‘찰떡 궁합’

최근 8경기 동반 출격...6경기서 승리 지켜

‘고졸 1, 2년차’ 새내기 한기주(19)-윤석민(20)이 ‘환상 계투조’로 맹추격 KIA의 4강행 진출에 든든한 구원병이 되고 있다. 지난달 선발에서 셋업맨으로 변신한 한기주와 한달 앞서 마무리로 전업한 윤석민은 ‘중간-마무리’ 콤비로 보직을 변경한 뒤 최고 구속 150km대의 ‘위력구’를 앞세워 지난달 12일 SK전 이후 승승장구 하고 있다. 두산과 마지막 4강 티켓을 놓고 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기주-윤석민 ‘계투조’는 12일 현재까지 모두 8경기에 투입돼 6승 2패의 알토란 같은 성적을 자랑했다. 이들은 첫 호흡을 맞춘 지난달 12일부터 그 진가를 발휘했다.

SK와 맞붙은 이날 한기주는 1-1 동점 상황에서 7회 마운드에 올라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윤석민은 9회를 지켜 2-1, 1점차 승리를 쥘어냈다. 이들은 또 5-2로 승리한 같은 달 23일 LG전에서도 한기주가 6회부터 2.20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8회부터 윤석민이 뒷문을 봉쇄, ‘한-윤’ 계투조의 화려한 탄생을 알렸다. 지난달 27일 광주 현대전은 ‘한-윤 계투조’가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 ‘특급 에이스’인 그레이싱어가 6회에 만 2점을 내주며 흔들리기 시작하자 KIA 벤치는 한기주를 마운드에 올리는 모험을 시도했다. 한기주는 기대에 보답하며 3.1이닝 동안 무안타, 1볼넷, 3탈삼진 무실점으로 호

투했고 이어던진 윤석민이 9회 마지막 타자인 대타 강병식을 내야방물로 끝까지 처리, 3-2 역전승을 이끌어냈다. ‘우천리’로 접어들어 9월들어서도 ‘한-윤’ 콤비의 승리 방정식은 이어지고 있다. 한기주는 지난 2일 SK와의 문학경기에서 2-1로 불안한 1점차 리드를 유지하던 5회 2사 1.2루서 구원으로 나서 3이닝 2안타 1실점으로 호투한 뒤 윤석민에게 마운드를 넘겼고 4-3 승리를 지켜냈다. ‘한-윤’ 콤비는 지난 7일 광주 삼성전에서도 1-0으로 앞선 8회초 1사 2루 위기상황서 투입돼 무실점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선발 투수로 나선 그레이는 경기 후 “요즘 한기주-윤석민의 투구 내용은 투수인 내가 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극찬했다. 4강행 경쟁자인 두산과 이번 주말 부담스런 3연전을 치러야 하는 KIA로선 이들 ‘한-윤’ 계투조의 ‘찰떡궁합’이 희망이 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위기 진압

유제국 구원등판...1.1이닝 무실점 호투

유제국(23·시카고 컵스)이 빅리그 복귀 2번째 경기에서 구원등판해 위기를 잘 막으며 1.1이닝을 호투했다. 유제국은 13일(한국시간)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LAD저스와 홈경기에서 4회 선발투수 손 마사에 이어 등판했다. 유제국은 마사이 제구 난조로 물러나자 4회 2사 만루 위기에서 마운드에 올라 상대 타자를 위키수 플라이로 처리하며 잘 넘겼다. 5회에는 중전안타와 희생번트에 이어 볼넷을 내주며 1사 1.2루까지 물렸지만 삼진 2개를 잡아내며 깔끔하게 마무리한 뒤 교체됐다. 공 24개를 던졌고 스트라이크는 11개였다. 지난 6일 시즌 네번째로 빅리그에 올라온 유제국은 올 시즌 5경기에 출장해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8.64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8-8로 맞선 연장 11회말 세사르 이스투리스가 끝내기 안타를 날려 시카고 컵스가 승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위성미 PGA 출전 인터넷서 찬반 논란

미국 공영방송 NBC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셸 위는 사기꾼인가(Is Michelle Wie a fraud?)’라는 제목의 토론방을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NBC 인터넷판이 13일(이하 한국시간) 올려놓은 ‘위성미 다시 남자대회 도전’ 제하의 기사 중간 부분에 링크된 온라인 토론방은 지난 9일 만들어졌으며 하루 전 스위스 크랑 몬타나에서 끝난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오메가 유러피언마스터스대회에서 위성미가 최하위로 컷오프된 데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토론방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약 80여 개의 글들이 올라와 있으며 토론 참여자들은 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성미가 남자대회 출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미국 언론이 냉소적인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낫다는 분석도 나올 수 있다. 14일 미국 켈시베이니아주 파밍턴에서 개막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84번째를 래식에서 또 한 번 ‘남자의 박’에 도전하는 위성미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